

### 추모공원에 자연장 시설을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화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중 53%가 화장을 택해 화장비율이 처음으로 매장을 넘어섰다고 한다. 화장률은 1955년에 5.3%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은 75% 전국에서 화장비율이 가장 높다. 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한 부산시에서는 머지않아 화장률이 100%에 육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지체되어온 사망자 수가 앞으로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사망자수의 증가와 화장률의 상승으로 인한 장묘수급환경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가. 부산시는 내년 10월이면 영락공원의 납골시설이 만장이 될 것이기에 기장군 정관면에 제2의 영락공원이라 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설계하여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이 추모공원은 7만8천평 규모에 납골당 10만위, 벽식납골묘 3만위, 가족납골묘 1만위를 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장과 유골을 지정된 나무 아래 묻거나 땅에 묻은 후 나무를 심는 수목장과 같이 인간의 주검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환경 친화적 장례를 뜻한다. 그래서 자연장을 에코 다이닝(eco-dying)형 장례라고도 한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장이 새로운 장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고려대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알려진 후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발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5%가 수목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4.7%가 본인이나 죽으면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설 수목장립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설 수목장립운영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3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도유림에 15만평 규모의 수목장립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자연경관이 좋은 경기도 용미리에 3만평 규모의 자연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는 주민들이 납골당을 반대하고 수목장립을 희망하기에 당초의 납골시설계획을 변경하여 기존의 시립공립묘지를 수목장립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화장을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부산시는 아직 수목장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영락공원에 정자 형태의 영락정을 지어 그곳에 유골을 뿌리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모의 방법이나 환경미화의 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에 대한 인식이 납골당 안치에서 자연장으로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55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사문화의 납골에서 산골문화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산시의 복지시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모공원에 납골시설만 설치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목장 혹은 정원장과 같은 자연장 시설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기고



박 문 현

부산장묘문화개선협의회 회원·동대대 교수

현재 국내에서는 공설 수목장립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설 수목장립운영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3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도유림에 15만평 규모의 수목장립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자연경관이 좋은 경기도 용미리에 3만평 규모의 자연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는 주민들이 납골당을 반대하고 수목장립을 희망하기에 당초의 납골시설계획을 변경하여 기존의 시립공립묘지를 수목장립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이나 논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희비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 지수' 평가결과로서, 한국이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떨어진 것이다. 조사항목 가운데 정부부문 경쟁력에 직결된 '창업관련 행정절차 수'에서는 85위, '정부지출 낭비'에서는 73위를 각각 차지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브라운대학이 실시한 '글로벌 전자정부' 평가결과로서, 한국 정부가 '홈페이지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19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것도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32위와 86위였다고 하니 선뜻 믿기 어려울 만한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국제경쟁력 지수'나 '부패인식 지수'나 하는 국제비교 결과들은 측정지표 설정에 있어서 혹은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으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들쭉날쭉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연도별로 발표되는 국가별 순위를 놓고 너무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 대체적인 변화의 경향을 헤아리면서 자국의 강점과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항목들을 정책추진과정에 참고로 삼으면 족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에 한국이 '홈페이지 관리'에서 크게 발전했다는 앞의 보도에 의의가 없지 않다. 이미 전

### 부일시론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자정부 제5단계 진입의 과제

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인구 2인당 1대 이상의 개인컴퓨터 보급, 초고속 전산망 구축, 거의 모든 서류의 디지털화, 전체 가구의 73%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이 (그것도 70%이상의 이용률) 인터넷 사용 등은 가히 세계적인 기록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한국은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세계 5위, 그리고 국가정보화 지수에서는 세계 3위에 올라서 있다. 전자정부 추진에서만 일본을 비롯한 많은 경제대국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며, 이른바 21세기형 '지식정보국가'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행정학회가 최근에 공동으로 개발한 이른바 '전자정부 5단계 모형'에서 한국은 4번째 단계인 '전자거래'의 수준에는 도달해 있으나, 5번째 단계인 '마디 없는 통합'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5번째 단계로의 진입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력을 통해 전자정부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일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렇게 구축된 하부구조를 활용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행태와 사회구조적인 사안에 결부되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말물 썰물

#### 성삼재 도로

인류의 진화 단계를 원인(猿人)→원인(猿人)→구인(舊人)→신인(新人)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신인이다. 현생인류로도 불리는 신인은 4만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생인류는 우수한 지능과 왕성한 호기심으로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전 단계 인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룩했고, 그 발전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그 발전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다. 현생인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이행에 첫발을 디딘 것이다.



하지만 공업화를 통한 인류 문명의 발달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희생 위에서 이뤄졌다. 인류문명 발달의 역사는 뒤집어 말하면 자연환경 훼손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들은 역설한다. "인류가 더 이상의 발달을 포기해야만 지구를 그나마도 지킬 수 있다."

말썰기 잘 있던 주변의 산이 하루 아침에 잘려나가고 까뽀게지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같이 생기고 굴이 뚫리고 공장이 들어서었다. 인간과 그 산에 살던 동식물까지 죽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거센 찬바람 논란 속에서 1988년 개통된 성삼재 도로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선사했다. 연간 통과 차량만 45만 대, 방문객은 110만 명에 달한다. 노고단 탐방객은 도로 개통 이전보다 20배나 늘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을 지리산 환경 훼손을 담보로 생겨난 것이다. 도로를 폐쇄해 주변 생태계 복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이 오는 14일 성삼재 도로 경기 대회를 기점으로

"1년에 단 하루 만이라도 차가 아닌 발로 걸으며 이 길을 지리산에 되돌려 줄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 대회 취지다. 많은 것을 생각해 줄 바란다. 김일규 부산신문 mri1gyu@busanilbo.com

### 독자칼럼

#### 소크라테스의 변



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투표권을 통해서 입법자를 선출하고 그들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법을 만든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만일 국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삼중의 부정을 범하는 것이다. 곧 자기 삶을 부여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양육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복종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불경죄'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해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억울함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악법을 따르지 말고 도망칠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순순히 독배를 들으려 준비된 잔을 목숨 실행에 옮겼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형사사범 검거건수는 151만2천247건이며, 기초질서위반사범 검거건수는 162만 278건, 교통단속 건수는 1천222만4천740 건이었으며, 집회개최건수는 1만1천367 건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억울함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악법을 따르지 말고 도망칠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순순히 독배를 들으려 준비된 잔을 목숨 실행에 옮겼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과 충돌만을 일삼아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다수의 약속이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우리 모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투표권을 통해서 입법자를 선출하고 그들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법을 만든 것이다.

김성훈 부산상경경찰서 정보과장

**부산일보 THE BUSANILBO**

발행·편집 겸 인쇄인 **金鍾烈**    본실주간 **李文燮**    편집국장 **姜宗奭**

1960. 7. 1 등록번호 가-15호 (일간)    부산일보 인터넷신문 [www.busanilbo.com](http://www.busanilbo.com)  
601-738 부산시 동구 수정동 1의10    부산일보 전자우편 [webmaster@busanilbo.com](mailto:webmaster@busanilbo.com)

본사대표전화 **051-461-4114**    대표FAX **051-463-8880**  
독자서비스 **051-461-4444**    구독신청 **090-900-5588**

배달안내 080-900-6688    정보서비스센터 051-461-4067~8    서울지사 02-734-7641~5    금정서우 051-519-0001

정 치 부 461-4106~8	스포츠 부 461-4191~2	원근연초팀 461-4162~4
경 제 부 461-4121~6	생활과학부 461-4092~6	광고매점팀 461-4304-4336
사 회 부 461-4131~7	인터넷뉴스부 461-4485	문화사업국 461-4438
사 회 2 부 461-4166~7	사 진 부 461-4211~5	제작국출판팀 461-4405
문 화 부 461-4181~4	탐사보도팀 461-4040~2	독자서비스국 461-4228~9
국 제 부 461-4196~7	인물독자팀 461-4116~7	461-4267

(해외지대신문)    西日本新聞(일본)    解放日報(중국)    블라디보스토크신문(러시아)

구독료 1부 400원/월정 10,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himo natural project #1**  
한치의 오차없는 두상 측정으로 내 머리에 꼭 맞는 나만의 가발을 만들어라!

**하이모 3D 시스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두상도 제각각입니다. 앞 이마선, 가르마 형태, 머릿결, 모근 굵기, 색상까지- 미세한 차이를 컴퓨터로 측정하여 세상에 단 하나 당신께 꼭 맞는 가발을 만들어 드립니다.

두상측정이 잘못되면 가발이 어색해진다  
가발을 썼을 때 내 머리같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두상측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두상은 지문처럼 모두가 다르기에, 전체적인 두상형태, 가르마, 귀머리의 형태, 모근의 굵기, 머릿결의 부드러움 정도 등 개인별로 다른 두상의 모든 특징을 정확히 측정해야 완벽한 가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문의는 **1588-5858**    080-225-2525

타사고객(제품) 보상판매단행!  
해운대지점: 051)743-5876(대)  
부산지점: 051)462-3565(대)    동래지점: 051)556-9041(대)  
마산지점: 055)256-5838(대)    울산지점: 052)269-5862(대)

내추럴 프로젝트 **Hi-MO**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3D 곡선과학**  
두상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손으로 측정하고 설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모의 광학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이 입체적인 곡선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으로만 가능한 패커!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세계 초유의 가발 과학화를 하이모가 해냈으며, 2005년부터 매일 일정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의 오차없는 데이터 전송**  
3D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제작 현장에 전송됩니다. 정확한 측정 수치에 기반한 물동작업이 바로 시작되어 가발의 정확도는 물론 제작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나노스킨으로 감쪽같이 마무리하라**  
하이모의 스킨은 나노 단위로 측정됩니다. 0.03mm 이하의 나노스킨 이라면 벗겨내기 전에는 알아챌 수 없습니다. 만져봐도 알 수 없는 앞머리의 자연스러움, 하이모의 나노스킨을 경험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움과 쾌적함을 둘 다 잡은 듀얼 이펙트**  
감쪽같은 앞머리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나노스킨을 쓴다면, 속머리의 쾌적함을 위해 초극세사망이 필요합니다. 따듯한 내보내고 바람을 느끼는 쾌적함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HOS 기술의 초극세사망으로 완성됩니다. 앞머리의 자연스러움과 속머리의 쾌적함! 하이모는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이모 연구소에는 끝이란 단어가 없다**  
HOS망 미국 FDA 승인, 8건의 특허등록, 4건의 실용신안, 20여건의 제품 및 기술 개발! 하이모의 남다른 기술개발은 199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소 및 중국 연구소, 유고 연구소에서 각종 신소재와 적용 방법을 고안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에 어울리는 완벽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의 끝에 도전합니다 하이모 내추럴 프로젝트**

전국 어디서나 상담문의는 **1588-5858**    080-225-2525

타사고객(제품) 보상판매단행!  
해운대지점: 051)743-5876(대)  
부산지점: 051)462-3565(대)    동래지점: 051)556-9041(대)  
마산지점: 055)256-5838(대)    울산지점: 052)269-5862(대)

내추럴 프로젝트 **Hi-MO**

Himo 3D System